법제처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22.(목) 10:00	배포 일시	2022. 9. 22.(목) 10:00
담당 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책임자	총괄팀장 유철호 (044-200-6740)
		담당자	사무관 정유진 (044-200-6736)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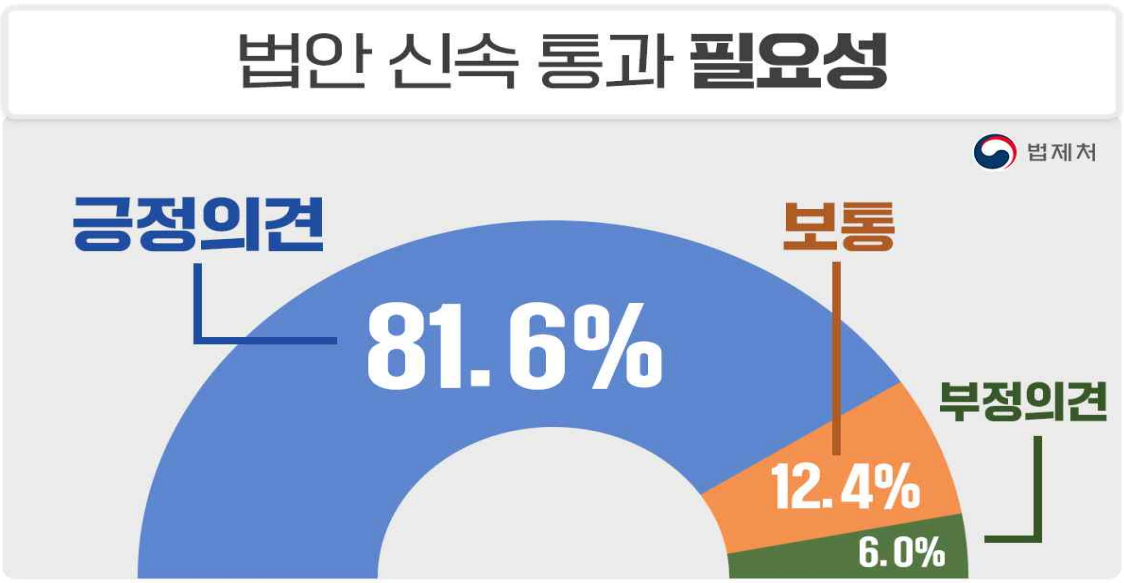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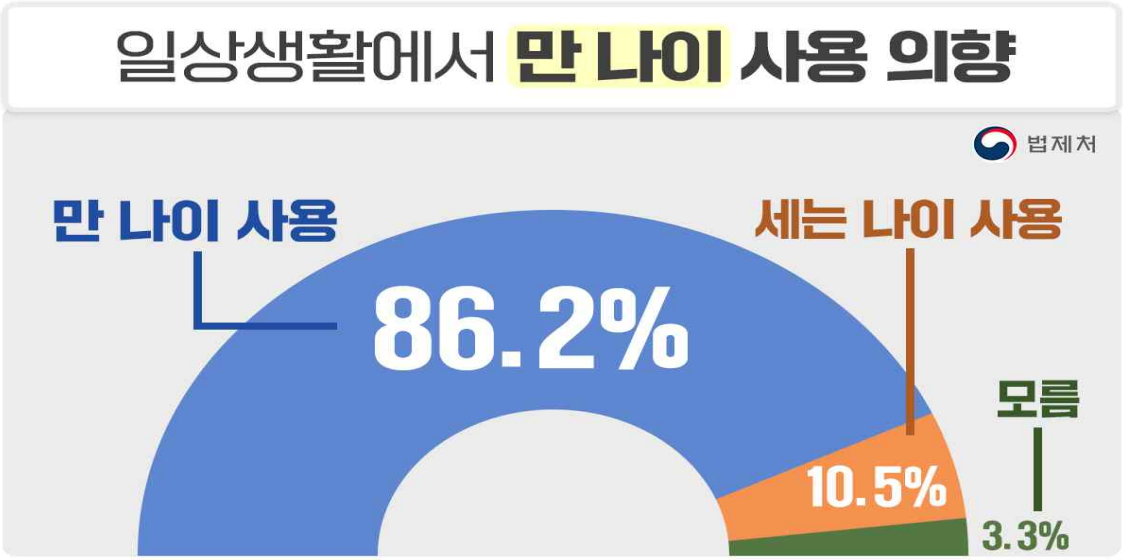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 ①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4.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5. 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만 나이 통일’ 관련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만 나이 통일' 관련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 조사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 조사기간: 2022. 9. 5. ~ 9. 18. (총 14일)
◇ 설문참여: 총 6,394명

□ 설문 문항

1) 귀하께서는 '만 나이'로 연령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다
   ②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다
   ③ 둘 다 알고 있다
   ④ 둘 다 모른다

2) 귀하께서는 '만 나이'로 연령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절대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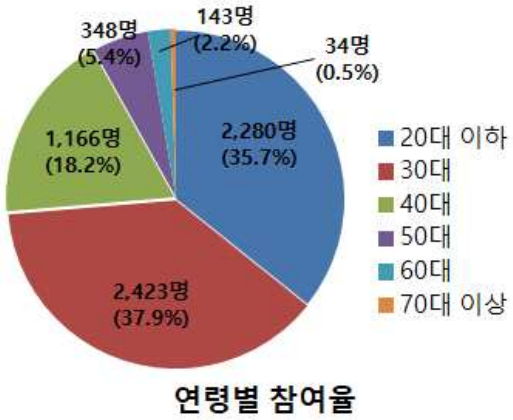
3) 귀하께서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될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① '만 나이'를 적극 사용하겠다
   ② 가능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
   ③ 가능한 '세는 나이'를 사용하겠다
   ④ '세는 나이'를 적극 사용하겠다
   ⑤ 잘 모르겠다

4)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① 20대 이하(~29세)
   ② 30대(30세~39세)
   ③ 40대(40세~49세)
   ④ 50대(50세~59세)
   ⑤ 60대(60세~69세)
   ⑥ 70대 이상(7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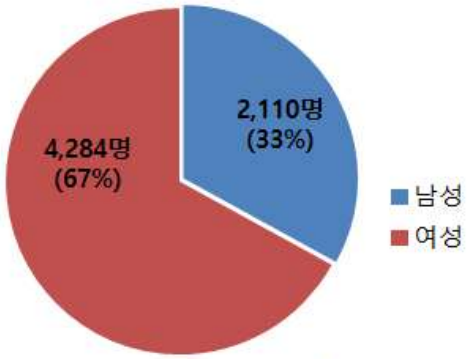
5)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남성
   ② 여성

□ 응답자 분석

○ 20대・30대 참여율(73.6%) 및 여성 참여율(67%)이 높음



연령별 참여율



성별 참여율

○ 40대 이상의 경우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둘 다 알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음

※ 40대의 31.7%, 50대의 36.8%, 60대의 42.7%가 둘 다 알고 있다고 답변

○ 전체 응답자의 81.6%(5,216명)가 '만 나이'로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 법안 신속 통과에 찬성한다(81.6%) > 보통이다(12.4%) > 반대한다(6.1%)

○ 모든 연령대의 과반수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변

(단위: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만 나이' 적극 사용	67.8	65.5	51.7	54.9	55.9
'세는 나이' 적극 사용	3.4	3.2	6.3	4.9	3.4
가능한 '만 나이' 사용	21.4	22.0	28.6	24.7	25.4
가능한 '세는 나이' 사용	4.6	6.1	9.4	10.6	10.7
잘 모르겠다	2.8	3.2	3.9	4.9	4.5

○ 남녀 모두 과반수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만 나이' 적극 사용 응답률이 높음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만 나이' 적극 사용	53.9	67.4
'세는 나이' 적극 사용	5.0	3.4
가능한 '만 나이' 사용	28.6	20.6
가능한 '세는 나이' 사용	8.4	5.7
잘 모르겠다	4.1	2.9